

순수문학에도 의문사-실종 등 추리소설 기법 속속 도입

어둡고 불안한 미래 미스터리 속으로...

안개로 유명한 도시 무진에서 한 달 간격으로 두 건의 의문사가 일어난다. 운동장 끝 절벽에서 떨어진 여학생과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 위를 걷다 죽은 남자는 모두 청각장애학교인 자학학 학생들. (공지영 '도가니') 한가로운 일요일 오전, 서울의 한강변에서는 허리에 돌맹이를 매단 한 구의 표류 사체가

떠오른다. (정이현 '너는 모른다') 소설의 시작과 함께 던져지는 참혹한 시체와 의문사, 그 속에 도사린 수수께끼 같은 비밀의 추적. 이는 더는 추리소설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 미스터리 기법이 국내 순수문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차용되며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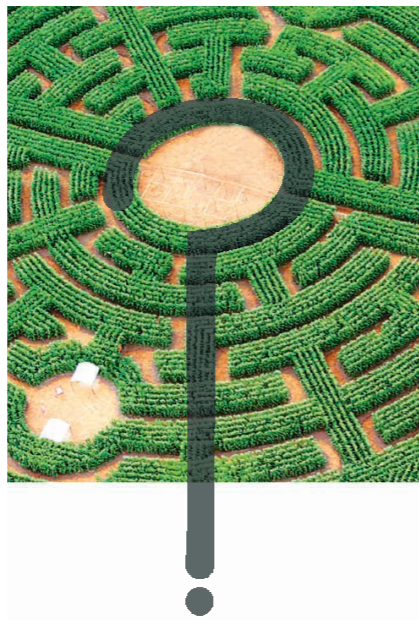
신경숙 씨

공지영 씨

정이현 씨

신 경숙 작가의 최신작 '엄마를 부탁해'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 작품은 기존 작품에서 보여 온 작가 특유의 서정성과 내면묘사의 섬세함이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형식적으로는 엄마의 '실종과 추적'이란 미스터리 기법을 활용했다. 엄마의 실종 일주일째로 시작한 소설은 가족들이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엄마의 흔적을 찾아 그의 일생과 인간적 면모들을 재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제위기 등 사회현실 반영 장르문학과의 소통도 한몫



각각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 인터넷교보에 온라인 연재 중인 공지영, 정이현 작가의 장편소설은 미스터리 기법을 좀 더 전면화한 경우다. 두 작품 모두 의문사 발생을 기점으로 청각장애학교에서 일어난 집단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가거나('도가니') 이혼과 재혼, 이복형제 등으로 복잡하게 얽힌 가족사('너는 모른다')를 풀어 나간다.

이런 시도들은 전통 미스터리 서사가 실현되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불가사의한 사건을 해결해 가는 논리적이고 일관된 서술 주제(탐정, 혹은 그에 준하는 이성과 통찰력을 가진 인물)가 없기 때문이다.

신 씨의 작품에는 사라진 엄마를 찾아내는 뛰어난 탐정 대신 딸, 아들, 아버지 등 복수의 서술자가 등장해 각자의 기억을 더듬는다. 이혼 작가의 단편 '50년 도로의 톰미러' 역시 범죄를 밝혀내는 시점 대신 입양한 아들을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실종으로 조작하는 범인

(엄마)의 입장에서 사건이 전개된다. 사건의 해결 역시 서연치 않다. 분명히 존재했던 장소가 어느 날 사라지고 없다는 불가해한 상황에서 출발한 염숙 작가의 단편 '지도에 없는'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주인공은 사라진 주소지에 살았던 이들을 추적해 가지만 끝내 실마리를 얻는 데 실패한다.

이처럼 미스터리 서사가 순수문학에서 각광받는 양상은 암울한 사회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학평론가 이광호 서울예대 교수는 "장르문학 탐정서사가 이성·과학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서 오는 쾌감, 안도감을 강조했다면 최근 작품들은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하는 주인공이 진실에 접근하려다 실패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며 "경기불황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본주의 질서의 합리성에 대한 회의 등이 미스터리 서사가 보여 주는 불가지론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장르 간 경계가 무너지며 빈번해진 장르 혼종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문학평론가 강우정 씨는 "장르소설, 인터넷 연재의 증가 등에 따라 서사 진행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기 좋은 미스터리 기법이 주목받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장르·하위 문학적 요소와의 접점이 주로 형식적 실험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기존 소설에 변화를 주고 관계를 타계해 나가는 방식으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이 사람 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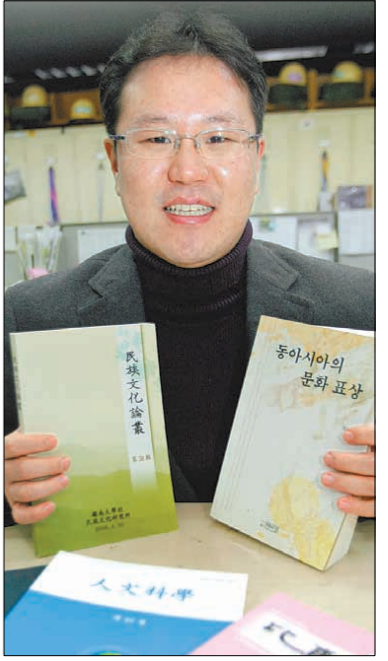
(11) 일제강점기 방송문화 관심 엄현섭 교수

"1927년 2월 라디오 방송국인 경성방송국을 개국한 일제는 우선 청취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청취자를 확보하는 방법은 재미있는 방송 콘텐츠를 보급하는 것이었지요. 그 과정에서 위안방송(慰安放送)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림대 일북학연구소 엄현섭(35·사진) 연구교수는 일제강점기 위안방송을 중심으로 근대조선의 대중문화를 연구한다. 위안방송이란 라디오 드라마와 대중가요 등 대중연예 콘텐츠를 가리키는 용어로 1940년대 초반에 이르러 '연예와 음악'이란 말로 대체됐다.

위안방송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 대중문화의 시원(始原)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체조와 여러 방송국의 사례에서 보듯 일제가 위안방송을 제국주의 건설에 이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중문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라디오 방송국이 드라마로 발전하는 과정을 예로 들었다. "경성방송국에서 내보낸 라디오 방송국은 처음에는 극장무대에서 공연한 것을 그대로 방송했기 때문에 무대극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다 1934년 토월회의의 일원이었던 방송극작가 김희창과 윤성구의 발의로 순수 방송국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경성방송국 초기엔 軍國색채 없어 재정자립 위해 연예-오락 집중편성"

을 위한 단체인 '라디오 플레이 팀'이 만들어졌지요. 여기서 오늘날 라디오 드라마의 모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는 방송사(放送社) 연표를 분석해 보면 경성방송국 초기 6년은 위안방송 개발에 주력한 시기였으며 노골적인 군국주의 색채를 찾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조선총독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청취료를 내리는 한편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 대중친화적인 다양한 위안방송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는 것이다. 경성방송국의 모델이 된 도쿄방송국도 개국 초기 최대사업은 위안방송 제작이었다고 한다.

국문학도인 그가 대중연예 연구에 발을 담그게 된 것은 집안 내력과 관련이 있다. 일제 때 가극단 부단장을 지내고 광복 후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외조부의 얘기를 듣고 자란 그는 대학 3학년 때 "외할아버지가 활동했던 한국 대중연예의 여명기를 연구해 보자"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2006년 2월 라디오 드라마와 무성영화, 축음기 음반 등 근대 미디어의 텍스트를 통해 근대조선의 문화를 분석한 '한국 근대 미디어 텍스트와 극양식 연구'라는 논문으로 성균관대 국문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심사과정에서 '대중연예가 문학이 다름 주제인가'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그는 당시 "문학에 있어서 주된 매체는 인쇄매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대 미디어의 대본이라는 형태로 재창조되는 것도 문학"이라고 대답했다.

이후 '라디오연감에 나타난 식민지기 위안방송과 그 성격' 등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해 그는 최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지원자로 선정됐다. 2011년 8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되는 '근대 한일 라디오 방송과 방송콘텐츠 비교연구'다.

그는 "한일 대중문화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주요 방송국의 작품 위주로 정리하고 서로의 공통점과 특수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했다. 황장석 기자 sunon@donga.com

로비에서

반구대암각화 중재안도 '침수'

울산시 '댐수위 낮추기' 거부... 국보 보존-시민 편의 접점 없나

훼손에 신음해온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울산 울주군)의 보존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빚어온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19일 국토해양부의 중재로 모처럼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울산시는 '물 부족과 수질 악화 우려'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며 중재안에 반대했다.

▶본보 12월 19일자 A21면 참조
이날 회의는 1965년 댐 건설로 침수가 반복되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댐 수위를 낮추자는 문화재청과 이를 반대해온 울산시민 아니라 중재자로 나선 국토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국토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협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암각화 보

존을 위해 일단 댐 수위를 먼저 낮춘 뒤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자는 안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는 식수 공급의 중요성을 내세워 댐 수위를 낮추는 것에 반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로서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댐의 실제 공급량을 근거로 "수위를 낮추더라도 최소 2, 3년은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

했다. 수위를 낮춘 뒤 암각화가 걱정하는 불편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국보를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책무라는 것이다. "댐 운영권자인 국토부도 수위를 낮추는 게 답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도 반구대암각화가 주저앉으면 누구든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해요. 더는 국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단 수위를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문

한국 선사시대의 생활을 생생히 보여주는 세계적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는 울산시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다. 울산시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국보를 관리하는 책임자다. 울산시는 울산시민의 편익을 중요시해야 하지만 국보의 보존에도 책임이 있다.

문화재청과 울산시의 갈등 사이에서 '제3자'인 국토부가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강제성은 없다. 결국 공은 울산시에 넘어간 셈이다. 울산시는 반구대암각화가 울산시민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보 보존과 울산시민의 편익이라는 두 가지 공익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암각화의 훼손 정도로 볼 때 시간이 넉넉지 않다.

윤원준 기자 zeitung@donga.com

신년 특별 기획

1 오세훈 서울시장 Queen 독자에게 신년 특별 연하장을 전합니다
"웃으며 희망을 말할 때 행복이 열리는 새해 아침입니다"

본지 특집 1
명세빈, 이혼 후 처음으로 본지가 단독으로 만났다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중, 컴백은 결정된 바 없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공식 성명서 내지 않던 그녀를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날 수 있었다.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버텨낸 모습은 보는 이들의 찬탄을 받았다.

본지 특집 2
최진영, 베트남 봉사활동 다녀와 처음으로 그간 심경 단독 인터뷰
"누나 잃은 현실은 영원히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픔이다"
베트남 호이안 다녀왔다. 그곳에서 누나 최진영의 비탄은 더욱 깊어졌다. 자신의 슬픔을 모두 털어낼 수 있었던 누나에 대한 그리움.

본지 특집 3
홍성천이 케미아웃 이후 최초로 본지에만 가족을 공개했다
아버지, 누나, 자신 앞으로 입양한 조카들과 '패밀리' 첫 인터뷰
고백 10년째 되던 날, 누나의 두 조카까지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며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받고 있는 그가 처음으로 온 가족을 본지에 공개했다.

결혼 6년 만에 신동진 아내와 이혼 합의 인정한 노현희
끊임없는 불화설과 이혼설 전하며 살아온 그녀의 속사정
결혼 초기부터 좋은 문화생활 사랑하던 두 사람이 결국 파국 속으로 전락했다. 소식이 전해지던 날 한 방송사에서 그녀를 단독으로 만났다.

실연 밀고 연기에 집중하는 김정은, 그간의 오해와 심경
연인과의 이별을 눈물로 고백한 그녀, 자신이 진행하는 음악프로그램과 드라마를 통해 실연의 아픔을 이겨내고 있다.

결혼 전 임신으로 화제 모은 권상우의 즐거운 비명
"스테이션과 결혼하건 진정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현재 임신 6개월로 임박한 권상우는 슬픔 속에서도 웃고 있다. "결혼을 하면 아버지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그의 진심.

'친딸 비난' 논란 휩싸인 가수 김수철, 정말 비정한 아버지였나?
친딸이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자신을 공개비난한 것에 대해 김수철은 사심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실 여부에 관한 질문은 증거 제시.

재결혼 이후 8년, 더욱 애뜻해진 나한일·유혜영 부부
시련을 이겨낸 부부는 마치 비 온 후 땅이 굳는 것처럼 더욱 확고한 부부애를 과시한다. 지금, 다시 찾은 행복은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

뇌경색으로 태어난 딸 미국에서 건강하게 키우는 방송인 안문현의 요즘 생활 인터뷰
미국에서 '기러기 엄마'로 살고 있는 그녀가 잠시 한국을 찾았다. 딸 한송이를 든든하게 키워낸 그녀는 영어 공부에 한창이다.

암 투병 중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원시의회 김영대 의원
암 투병 의정 활동을 신고받고 평일에도 출근하는데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이고 있는 김 의원의 헌신의 역발.

신년 특별 기획

2 연극배우 윤석화가 직접 써서 보내준 2009 새해 희망 메시지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때 비로소 힘이 솟아납니다"

주철환 OBS 사장 & 박영환 KBS 앵커의 신년 특별 대담
"22년 한결같은 우리,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한 인연을 말한다"
MBC '뉴스 앵커' PD와 '1회 출연자로 첫 만남' 무수 일을 경험한 때때로 스타쉽이 자문을 구할 정도로 주 사장은 박 앵커의 멘토.

자식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국민배우·국민엄마 김혜자, 아들 내외에게 직접 들은 "진짜 우리 어머니에 관해"
장남 임현식 씨는 무연결하는 사연가. 머느리는 성우이자 배우 정승현의 딸. 이들 부부가 인간 김혜자에 관해 모두 밝혔다.

폐암으로 사망한 '천생 배우' 박경정의 46년 인생 풀 스토리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깊은 내공을 지닌 배우. 임 할기 신곡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연기와 연극 연출을 병행했던 그의 인생.

수녀에서 비구니가 되기까지, 일야 스님의 수행 인생
처음 수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택한 곳은 절이 아닌 수도원. 수녀로서의 삶을 버리고 불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 이유.

방송인 신영일, 봉어빵 부자의 행복한 새해맞이
여섯 살 어린아이를 데리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놀이친구다. 그는 알고 보니 꽤나 가정적인 남편. 다양한 아내였다.

개그맨보다 더 유쾌한 전현무 아내인 'Bravo My Single Life'
얼마전 그는 인터뷰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아내인 전현무는 너무 대단한 이 남자의 성공라이프가 진짜 궁금했다.

라디오 진행 10년, '브론즈 마우스' 수상한 손석희 교수
처음 수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택한 곳은 절이 아닌 수도원. 수녀로서의 삶을 버리고 불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 이유.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열정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를 만나다
"이것도 가야 할 음악의 길은 멀다"라고 말하는 그를 만나 음악의 삶,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연예계 떠났던 7년간의 심경 고백, 방송 복귀하는 이상아의 다시 꾸는 꿈
두 번의 이혼과 세 번의 결혼으로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지만 다시 복귀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 그녀의 마음고생.

Queen
www.queen.co.kr

1 2009
정가 7,900원
신년 특대호

광고 문의 : 02-320-6050
구독 문의 : 02-320-6060

전 독자 증정 특별 선물

1 판매 중인 5,000원 요리책을 드립니다
요리쿠도 우리집 명절 음식

2 독서 부록 / 국어강사 박인숙의 독서 강좌 7
미움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건너간 아이!

3 재테크 부록 / 재테크 '황금 사이클' 다시 올라
2009년 주식 & 부동산 시장 전망

4 책 속 부록 / 특별 기획
엄마들의 새로운 꿈 '맘프러너'

5 권말 부록 / 건강 기획
2009년 새해 건강의 시작, '친환경 건강법' 대공개

나이 마흔에 엄마 되는 탤런트 이승연의 행복한 임신 소식
부드러운 카리스마 김연수 송파구청장의 성공과 도전
신화를 창조하는 여성 CEO-2008 올해의 퀸 시상식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해넘이 & 해맞이 여행'
임신부들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임신 바우처'
설원 위의 '무한레깅' 즐기, 스노보드 왕초보 기자의 초보 탈출기
섹스 킬리스트 3인의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거침없는 대담
새해 복을 부르는 소풍을 집에서 만드는 스파게티 소스 공식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윙프리드 리프트 & 장비 렌탈 30% 할인권-전 독자 / 오레과 '나비부인' R2 2매 15명 / RNS의 GF3
명품 세련 & 힐 3종 세트 4명 / 김소형 본 다이어트 25명 / 퍼플스의 1회 무료미팅 상품권 10명 / 독자의
집 치재, 드레스룸, 마네킹, 도어북 무료 개조 / 리마인드 워드, 가족사진 촬영권 5명 / 타임씨 헬빙 아
토르 스파900 세트 2명 / 스카이라인 헬스케어 아이 케어 어거먼트 다크세럼 5명 / 광명 신안오리드
삼푸 & 염색약 3종 세트 32명 / 대상화웨이브 플로로라 12명 / 티몬스피리드 4인 입장권 20명 / 예
스퀘어워터미 달맞이꽃종자유 55명 / 시버비안 페이스파우더 45명 / 타워웨이 크리스탈 슈퍼 세트 20명